

# ‘국민체감 정책 구현’ 을 위한 기상서비스 혁신 아이디어 공모 제안서

제안명	<p>기상, 보험산업의 바람이 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산업 및 보험산업 상생 기반 사회 편익에 기여</li> <li>-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상서비스의 역할</li> </ul>
제안배경	<p>○ 기상산업의 행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 청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상산업의 성장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기여하겠다고도 했다. 취약계층인 농촌 노인 등을 위해 폭염 영향 예보 직접 전달 체계를 수립하고, 야외 근로자 지원 강화, 기상청 어플 ‘날씨알리미’ 개선 방침도 밝혔다. (2022. 08. 04 news1)</li> <li>- 경영목표(~2025)로 기상산업 일자리, [전략목표 - 전략과제]로서 [기상기술정보 사회가치 확산 - 관측 사각지대 해소 지원] 및 [국민체감 사회적 책임 실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식홈페이지)</li> <li>- 기상산업분류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30] 기상감정업 :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산업활동</li> <li>[510] 기상관련 손해보험업 : 기상악화로 인해 여객, 화물, 농업 등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공식홈페이지)</li> </ul> </li> </ul> <p>○ 보험산업의 행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수해보험은 농어촌주민, 소상공인 등이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환경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이다.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보험요율 기준을 내놓는다.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하자,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새 풍수해보험 요율 모델을 개발해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24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정부 목표치인 30~40%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가입률은 주택 23.7%, 온실 14.7%, 소상공인 상가·공장 4.1%에 그쳤다. (2022. 05. 31 조선일보)</li> <li>- 작년 2월 국내 보험업계는 ESG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그 후로 보험회사는 경영 전반에서 ESG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21년 ESG 평가에서 보험회사 대부분 A등급을 받았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보험산업이 기존에 안고 있는 사회적 불신</li> </ul>

	<p>을 극복하고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려면 사회적 신뢰 강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S 영역이 중시될 필요가 있다. (2022. 01. 28 한국보험신문)</p> <p>○ 정부(국가)의 행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22년 4월 5일부터) [재난지원금 수령 저소득층, 재해 위험지역 거주 저소득층, 풍수해보험금 수령자는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재난지원금보다 풍수해지원금이 적은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차액 지급]</li> <li>- 민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경주하면서 ESG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성장발판이 되고 있다. 주요 그룹들이 ESG 조직을 상위그룹에 배치해 경영 우선순위에 놓고 있으며 관련 새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노력에서 일자리도 생긴다. 기업들의 ESG 활동은 정부의 K-뉴딜(한국판 뉴딜)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다. (생략)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이 책정돼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21. 03. 29 매일일보)</li> </ul>
<p>개선사항</p>	<p>I. Problem</p> <p>1. 필요성에 비해 적은 수요</p> <p>○ 또 풍수해 위험에 대한 과소평가를 들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풍수해보험의 가입건수가 급증했는데, 이 해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하고 연이은 태풍으로 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때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전년에 비해 786%(1만1998건)가 증가했다. (2022. 04. 07 안전저널)</p> <p>2. 민영보험회사가 적극 나설 유인이 크지 않음, 정책성 보험의 한계</p> <p>○ 보험업계에서는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 부족을 꼽았다. 보험업 종사자 A씨는 “행정기관의 홍보 역량에 따라 가입률이 천차만별”이라며 “개별 문의는 지진, 태풍 등 풍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반짝 늘어나는 수준이고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짚어냈다. 풍수해보험 상담 업무를 수년간 맡아온 B씨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보니 원래부터 보험을 알고 있거나, 지인 소개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21. 09. 02 경인일보)</p> <p>3. 풍수해보험 사각지대 여전</p> <p>○ 5월 6일 충남 금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3동이 강풍으로 인해 비닐이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비닐을</p>

교체한 지 1개월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 농가는 보험회사로부터 “풍속기록이 없어 강풍 피해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보험금도 지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기상관측소를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청도 기상청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 06. 15 농민신문)

#### 4. 국지적 기상관측 기록의 공급 부족

-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강풍으로 인한 피해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인근 기상관측소에서 관측된 풍속이 14m/s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태풍 등 광범위한 지역에 부는 바람이 아닌 국지적인 돌풍으로 발생한 피해는 관측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지난 5월 1일 경기 여주·이천·안성 등지에 국지적인 돌풍이 불어 12농가가 시설 하우스 피해를 봤다. 하지만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2022. 06. 15 농민신문)

#### 5. 위험률이 높은 지역에서만 보험을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 보험료 산출원리인 대수의 법칙 무시, 손해보험 요율 산출체계

- 동일한 시·군·구라면 위험률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점도 문제다. 예컨대 대전의 산 중턱 주택과 도심 한복판의 주택은 위험률 차이가 크지만 같은 대전 지역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동일하다. (2020. 09. 17 충청투데이)
- 관찰횟수를 대량화하면 발생확률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법칙으로, 보험수리적 기초가 되고 위험의 수치화를 가능하게 함
- 가입자별로 개별위험의 손실결과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요율로, 가입자에게 (등급)요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요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 개별요율을 활용함 (개별요율 산출에 예측 관련 전문인력 육성비용 및 관리비용이 추가 소요됨)

## II. Idea

### 1. 날씨 알리미 어플 개선 (또는 별도의 어플 개발)

- 기존 어플의 형식적인 정보 제공이 아쉬움
- 어플이 새로운 인사이트 제공의 장으로서, 사회(국민) 편익에 기여해야 함

### 2. 국지적 기상관측 기록 공급 (주체 : 강소기업)

- (충분한 기술력) “기존의 날씨 정보는 관측소의 측정 데이터가 주변 지역의 대푯값으로 사용되었지만, AlphaMet 솔루션은 관측소 간 공백의 날씨 정보를 현실성있게 재현합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유튜브 채널, 나노웨더 공식홈페이지)

- 경북 영천시에는 방재기상관측소가 3개만 설치돼 있어 그 외 동네의 기온 정보를 대푯값으로만 제공받을 수 있었다. 나노웨더는 방재기상관측소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들의 날씨와 기온을 예측·추정하는 기술을 실증했고, 해당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경북 영천시와 공동 부스로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다. 국토부 실증 사업을 통해 영천시에 단위 관측소를 10곳에 설치, 관측소에서 측정한 값과 해당 기업의 서비스로 생산한 데이터를 비교하기도 했다. (생략) 실제 온도와 유사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2022. 07. 11 에이빙뉴스)

### 3. 시설물 위험 지속적 관리 (다른 손해보험 상품과 연동한 모니터링)

- (생명보험 유사사례) 생명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보험 상품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생략) 건강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사후보장에서 사전예방으로 바뀌면서 건강관리만 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 소비자는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사망·질병발생 확률 등 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를 하라뿐 아니라 (생략)

(2021. 10. 04 한스경제)

### 4. 가입자의 보험계약법 이행을 돕기 위한 체크리스트 정기 발송, 풍수해보험 외 가입 손해보험이 있다면 연동하여 체크리스트 생성, 체크리스트 기반 위험관리노력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제공

- 상법 제4편 보험
  - 제652조(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생략)
  - 제680조(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략)

### III. Detail

<p>국지 기상 정보 제공사업자명 (예시 : 나노웨어)</p> <p>가입보험회사명 (예시 : 한국손해보험)</p> <p>보험의 목적 (예시 : 시설물(주택 등))</p> <p><u>알림</u> 0월 0일 0시 00분 경 가입 시설물에 돌풍피해 우려 (위치 : 충남 논산시 00면)</p>	<p><u>가입현황</u></p> <p>풍수해보험 ~ 0000. 00. 00 ~ XXXX. XX. XX</p> <p>OO자동차보험 ~ 0000. 00. 00 ~ XXXX. XX. XX</p> <p>XX화재보험 ~ 0000. 00. 00 ~ XXXX. XX. XX</p> <p><u>체크리스트 (확인/미확인)</u></p> <p><input type="checkbox"/> 시설물(상가 등)의 구조를 변경하였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보험목적물(물건 등)의 위치를 옮겼습니까?</p> <p><input type="checkbox"/> 자동차의 용도를 변경하였습니까?</p>	<p><u>보험조회</u></p> <p>월보험료 ₩</p> <p>Total ₩</p> <p>이번 달 적용받은 보험료 할인혜택 ₩</p> <p><u>다른 혜택 더 보기</u></p>
--	---	--

### 기대효과

- 기상산업의 측면
  - ESG 경영에 부합
  - 기상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창출
  - 기상산업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기상사업자의 보험사업과의 상생
- 보험산업의 측면
  - 보험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 별도의 (예측) 전문인력 비용 절감
  - 홍보에 나설 충분한 유인 생성(리스크 관리, 모니터링)
  - 개별위험을 반영하여 효율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  
경험통계 구축
- 사회(국민)의 측면
  - 사회안전망이라는 보험의 기능 발휘
  - (보험을 통해) 사후보상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체계의 구축
  - 농촌지역 등 국지적 기상관측 기록의 공급(주체 : 강소기업)  
확대
  -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통해 국민생활 밀접 분야(보험)에서  
사각지대 해소
- 정부(국가)의 측면
  - 국민보호의 사회적 책임 이행
  - 재난 피해 관련 복구 지원비 경감
  -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활성화